



서동노래(서동요)의 바탕에 대하여

저자
(Authors) 김수업

출처
(Source) [어문학](#) , 1976.11, 41-63(23 pages)
[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 1976.11, 41-63(23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어문학회](#)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052915>

APA Style 김수업 (1976). 서동노래(서동요)의 바탕에 대하여. 어문학, 41-63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 사문화관
183.106.106.***
2021/06/25 13:24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서동노래(薯童謠)의 바탕에 대하여

김 수 업

〈내 용〉

- | | |
|-----------------|-----------------|
| I. 글머리 | IV. 무강(武康)은 누구냐 |
| II. 기록의 새 검토 | V. 노래가 생겨난 바탕 |
| III. 역사와 설화의 구분 | VI. 마무리 |

I. 글머리

이 서동노래(薯童謠)는 삼국유사 제 2권의 무왕(武王) 대목에 실려 있는데 그동안 이 대목은 한국문학, 한국역사, 고대미술 등에 관심 있는 여러 학자들로부터 날카로운 주목을 받아 왔다. 그런데 또 나도 이 대목을 다시 살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아직도 「서동노래」에 대하여 따져서 밝혀 놓아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사실 나는 이 대목에서 「서동노래」 그것에만 관심을 오로지하고 다른 여러 논의(역사학·미술사학·민속학등)들에 대해서는 모르는 채 할 작정이다.

삼국유사 안에 실려 있는 신라노래 14수는 그것이 나타난 시기를 보면 대체로 6세기 말로부터 9세기 말에 달하고 있다.⁽¹⁾ 그 가운데서 이 「서동노래」는 가장 먼저 나타난 작품일 듯하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로 언제 생겨난 노래인지 아는 것은 신라노래의 역사를 바로 아는 데에 상당히 중요한 뜻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내가 삼국유사의 이 대목을 다시 살펴보고자 하는 첫째 이유는 곧 이 때문이다.

그리고 그 둘째 이유는 이 작품이 개인이 만든 것인지 집단 공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지를 한번 밝혀 보아야겠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바로 「서동노래」라는 이 작품의 갈래(génre)⁽²⁾를 결정하는 말미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삼국유사의 이 대목을 다시 살펴서 그 노래가 생겨난 바탕을 밝힐

(1) 이것은 「서동노래」를 武王의 지음이라고 보고서 하는 말이다.

(2) 김수업 : 신라노래의 이름과 갈래에 대하여 (배달말 1호, 1975. 9. 경상대학 국어교육과)

수 있게 되면 그것이 이 작품의 뜻을 바로 아는 데도 얼마간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제까지의 이 노래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연구를 나의 이런 의도에 견주어 잠시 살펴 보는 것은 나의 의도를 밝혀 들어내는 데에 유익할 듯하기로 이 글머리에서 언뜻 훑어 보겠다.

우선 「서동노래」가 개인이 만든 노래나 혹은 집단 공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냐 하는 쪽에서 보면 거의가 개인이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첫째 일연의 삼국유사 기록을 그대로 받아 드려서 백제의 무왕 그 개인이 지었다고 보는 학자들이 많고⁽³⁾ 둘째로는 삼국유사의 그 대목울 김 부식의 삼국사기와 견주어 따져서 역사적 사실에 결부시켜 백제의 동성왕 그 개인이 지었다고 보는 분들이 있고⁽⁴⁾ 심지어는 삼국유사의 그 무왕 대목을 같은 삼국유사 제 4권에 실린 「월호불기」 대목과 맞추어 서동노래를 월호 그 개인이 지었다고 보는 분도 있다.⁽⁵⁾ 그러나 한편 어떤 이들은 이 노래가 개인의 창작일 수 없다고 보기도 한다.⁽⁶⁾ 이 분들은 삼국유사의 무왕 대목 그것을 도무지 꼬투리를 알 수 없이 오랜 동안 세상에 흘러온 이야기(folknarrative)의 기록으로 보아서 이 노래도 그 이야기 안에 나타난 한 대사적(dialogue) 표현이라고 본다. 그러니까 이 노래는 어떤 개인의 창작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해 온 민중들의 공동적 만들어진다는 뜻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어떻든 이 노래의 지은이가 누구냐 하는 물음에 답하려 하기에 앞서 이 노래는 누가 혼자 지었나 아니면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생겨났느냐 하는 의문을 먼저 풀어 보아야 할 것이다. 거기서 이 노래의 제 모습이 드러날 뿐 아니라 그것이 신라노래의 갈래 구분에 커다란 갈림길인 듯이 나에게서는 보여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이 노래를 언제 생겼다고 보느냐 하는 쪽에서 잠시 살펴 보자. 연대의 앞뒤 차례대로 보면 맨 앞은 동성왕이 임금되기 전에 지었다고 보는 견해다.⁽⁷⁾ 이는 곧 서기 479년(동성왕이 즉위한 해) 앞의 1.2년으로 잡는

(3) 梁柱東; 增訂古歌研究 pp. 432~453(1970. 9. ~潮閣), 이밖의 많은 「국문학사」 「국문학개설」등에.

(4) ①李丙燕; 碧童說話에 對한 新考察(歷史學報 第一輯, 1953, 歷史學會)
②朴魯燁; 碧童話의 歷史性과 說話性(語文論集 第17輯 1976. 高麗大學校國語國文學研究會)

(5) 김선기; 益豐노래(碧童謠), (현리문학, 통권 151호. 1967. 7. 현비문학사)

(6) ①金烈圭; 鄉歌의 文學의 研究 一斑, (鄉歌의 語文學의 研究)

②史在東; 「碧童說話」研究(碧童池憲英先生華甲紀念論叢, 1971. 湖西文化社)

③趙靈英; 「碧童說話」研究評議(新羅時代의 言語와 文學, 1974. 韓國語文學會)

(7) 朴魯燁; 註 ④의 ①

셈이다. 두번째는 동성왕 15년(신라에 청혼하여 국혼을 이룬 해) 곧 서기 493년으로 잡는 것이다.⁽⁸⁾ 세번째는 무왕을 지은이로 볼 때 그것은 무왕이 임금이 된 서기 600년에서 앞으로 멀지 않은 어느 해라고 보는 셈이 된다.⁽⁹⁾ 네번째는 지은이를 원효라고 보던 원효가 요석궁 공주와 결혼하던 때쯤으로 보는 셈인데 그 때를 정확히 알 길이 없고 적어도 원효가 죽은 서기 686년 보다는 얼마간 앞서는 어느 해라고 보는 셈이 된다.⁽¹⁰⁾ 이 같은 여러 주장들에서 보듯이 하나의 노래가 생겨난 때를 무릇 200년이 넘는 시간의 거리를 두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형편이다. 그런데 사실 이 노래가 5세기 후반에 생겼느냐 6세기 끝이나 7세기 후반에 생겼느냐 하는 것은 무척 큰 역사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5세기 후반이라면 아직 신라가 중국의 정치·문화라든지 불교의 사상에 물들지 않은 신라 고유의 세계가 유지되어 있던 때였고, 6세기 끝이나 7세기 후반이라면 이미 중국 문화와 특히 불교의 영향이 상당히 들어온 때가 되기 때문이다. 이는 곧 오늘 우리가 보는 신라 노래가 중국 문화나 불교의 영향에 힘입어 생겨난 것인가 아니면 남의 영향 없이 그 앞부터 있었던 것인가를 가늠하는 열쇠가 되는 것이다. 만약 이 서동노래를 빼고 나면 나머지 13수의 신라노래 가운데서 가장 오래 될 것이 해성노래(解星歌)인데 이는 아마도 7세기 초엽의 것으로 분명히 밝혀지니까 이미 중국의 영향으로 사회제도를 바꾸고⁽¹¹⁾ 불교를 공인한지⁽¹²⁾ 100년이나 지난 뒤에 신라노래가 생겼다는 셈이 된다.

또 한편 이 서동노래를 무례노래(兜率歌)의 갈래라고 나는 보기 때문에 새나노래(詞腦歌)의 갈래에 드는 해성노래에 견주어 그 생겨난 시기가 서러워하거나 하는 절은 신라노래 안에서 각 갈래의 관계와 그 역사를 바로 아는 데에도 큰 몫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이 글에서 서동노래를 발미삼아 신라노래 전반의 역사를 논의 할다든지 그들의 갈래 문제를 새로 따지지는 않겠다. 다만 이 노래가 생겨난 바탕만을 차근히 살펴 보아 그런 문제들은 저절로 짐작되기를 바랄 뿐이다.

(8) 李丙燕; 註④의 ㉠과 같음.

(9) 梁柱東 以下 多數의 國文學者들

(10) 김선기; 註⑤와 같음.

(11) 514년에 지호법(總號法), 517년에 군사 제도, 520년에 법제도, 536년에 연호(年號) 사용,

(12) 527년 불교공인, 529년 살생금함, 544년 흥륜사(興輪寺) 창건.

II. 기록의 새 검토

㉠ 武王 古本作武康非也
音同漢武康

㉡ 第三十武王名瑋母靈崩築宮於京師南池邊池龍交通而生

㉢ 小名瑋童器量異測常服著發實爲活業國人因以爲名

㉣ 開新羅眞平王第三公主善花 一作美姬無雙號 變來京師以驛嶺號開皇群童劉附之乃作

詭誘群童而唱之玄華化公主主意他密只 據長跽古碧童房乙夜矣非乙抱過去如童語帶
京達於宮禁百官履棘履流公主於遠方將行王后以純金一斗隨行公主將記童所語童出
拜途中將欲待衛而行公主並不識其從來偶爾信怙因 此符行潛通焉然後知華童名乃信
童瑋之驗

㉤ 同至百濟出母后所賜金將議計活瑋童大笑曰此何物也非比 此是黃金可致百年之富
童曰吾自少採薪之地委積如泥土主聞大驚曰此是天下至寶 君今如金之所在則此寶驗
送父母官殿何如瑋竟曰於是聚金積如丘陵龍華山獅子寺知命法師所問驗金之計
師曰吾以神力可載將 金來矣主作書拜金跪於獅子前師以神力一夜輸置新羅宮中眞平
王見其神變歎服尤甚常施書問安否瑋望由此得人心即王也

㉥ 一日王與夫人欲幸師子寺至 龍華山下大池邊彌勒三尊 出現池中 留駕致敬夫人謂王
曰須創大伽藍於此地國所顯也王許之謂知命所問驗池事以神力 一夜顯山煥池爲平地
乃法像彌勒三會嚴塔廊廡各三所創之額曰彌勒寺 國史云 眞平王遺百工助之至今存其
寺三國史云是法王之寺
而此傳之爲妄之未詳

이 기록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1280 년대에 승려 일연이 엮은 삼국유사의 제2권 기이(紀異) 제 2에 실려 있는 「무왕(武王)」 대목이다. 이 글을 다시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그 짜임새를 몇개의 도막으로 나누어 기호(㉠~㉥)를 붙여 보았다.

㉠은 제목이다. 고본에는 제목이 무강(武康)이었는데 일연이 자기의 판단으로 무왕(武王)으로 고쳤다는 사실을 밝혀 놓고 있다. 일연이 그렇게 판단하고 고친 이유는 백제의 왕 가운데 「무강」이라는 왕은 없기 때문이라고 해 놓았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제목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한다. 일연의 판단은 물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거니와 그렇다고 애초부터 그를 다른 누구일 것으로 가정해 놓고 나가지도 않을 것이다. 누구인지 아직 모르겠지라는 편희상 일연보다는 더 앞서 있던 전승 혹은 기록일 것이 분명한 「무강」의 이름을 빌려 이 기록의 짜임새를 살피고자 한다.

㉡은 무강의 태어남(출생)에 관한 대목이다. 그의 어머니는 남편없이 홀

로 살고 있었고 집은 서울(백제의)의 남쪽에 있는 연못가에 있었다. 그 연못 속의 미로(龍)와 그의 어머니가 정을 통하여 무강이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㉔은 무강의 어린 시절이다. 여느 사람들과는 다르게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지마는 집이 가난하고 삶이 어려워 늘 마(鬻)를 캐어서 팔아 어머니와의 생필을 꾸려 갔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서동(驛童)이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㉕은 무강의 결혼에 관한 도막이다. 신라 진평왕의 세째 공주라는 것은 물론 이 병도(1953)⁽¹³⁾의 밝힘과 같이 일연의 그릇된 판단으로 생겨난 조작임이 분명하다고 보더라도 아무튼 무강이 신라의 공주와 결혼을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결혼은 여느 사람들 처럼 정상적으로 순조롭게 이룩된 것이 아니고 무강의 회한한 피와 설미(嚮戀)로 맺어졌다는 것이다.

㉖은 무강이 커다란 행운을 잡아 드디어 삶의 마루(절정)에 올라 서는 도막이다. 곧 임금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이야기다. 여기에서는 무강 자신의 능력보다도 남들의 도움이 크게 거들었다. 곧 신라 공주와 지명법사와 신라 임금의 도움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 잡아 임금의 자리에 올랐다는 것이다.

㉗은 일종의 뒷이야기인데 무강이 임금이 된 뒤 미륵사를 지었다는 이야기다. 그가 임금이 되는 데에 크게 도움을 주었던 지명법사가 있는 사자사(獅子寺)를 부인과 더불어 찾아 가다가 부인(곧 신라 공주)의 소원으로 미륵산존이 나타난 연못에 절을 세우게 되는 대목이다. 이 절을 세우는 일에도 또한 지명법사와 신라 임금의 도움을 입었고 그 미륵사(彌勒寺)는 일연의 때에까지 남아 있다고 하였다.

이제까지 이 글의 짜임새를 몇개의 도막으로 나누어 차례대로 살펴보았거니와 송 재주(1971)⁽¹⁴⁾의 연구처럼 성질이 영 별다른 이야기가 모여서 만들어진 설화의 묶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일생에 대한 일관성 있는 기록이라는 것이 확히 들어난다. 제목을 빼고나면 ㉑의 태어남 ㉒의 자라남 ㉓의 결혼 ㉔의 임금됨 ㉕의 뒷이야기. 이리하여 한 사람이 태어나서 고생스럽게 자라가지고 뜻밖의 결혼을 하게 되어 드디어는 임금이 되고 영광을 맛보는 길이 일관성 있게 말해지고 있다. 이것은 이 글을 기록한 일연이 스스로 이것을 무왕(武王)의 전기(傳記)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과도 물론 부합하는 것

(13) 李丙燾; 註㉑의 ㉑과 같음.

(14) 宋在周: 「驛童謠」의 形成年代에 對하여 (藏菴池憲英先生華甲紀念論叢, 1971-湖西文化社)

이다.⁽¹⁵⁾

그런데 ㉔에 나타난 무강(武康)의 출생은 어느 사람과 같은 정상적인 태어남이 아니다. 남편 없이 홀로 살던 그의 어머니가 연못의 미르와 교통하여 그를 낳았다는 것은 도무지 과학적 진실일 수 없다. 다만 심리적 혹은 상징적 진실일 뿐인데 이는 어떤 필요에 따라 꾸며진 이야기인 것이다.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런 이상한 출생의 이야기가 꾸며지는 것인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그것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어느 사람과는 영 유다른 특별한 능력을 지닌 영웅이거나 혹은 신(神)에 가까운 인간이기 위해서다. 이것은 동서양의 모든 신화와 전설의 주인공들이 개개 이상하게 태어났다는 것으로도 넉넉히 알 수 있거니와 일연도 삼국유사의 첫머리에서 그점을 밝혀 확인해 놓고 있다.⁽¹⁶⁾ 신화와 전설의 주인공들이 만백성의 복종과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특별한 능력을 지니기도 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특별한 존재라는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고, 그들이 어느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르기 위해서는 일생의 시작인 태어남에서부터 아주 다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결국 ㉔도막에 나타난 무강의 출생 이야기는 그(武康)가 특별한 영웅으로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㉔에 나타난 그의 어린 시절은 가난 때문에 어려움을 몹시 겪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단군이나, 현저세나, 수로왕에게는 불우한 어린 시절이 많이 감추어져 버리고 바로 임금이 되어 영광을 얻기도 하지마는 대체로 어느 민족의 영웅들을 막론하고 그들이 위대한 성공의 영광을 얻기에 앞서 피나는 고난의 길을 견디어 내는 것이 예사이다. 신화의 요소에서 멀리 떨어져 나온 영웅 설화일수록 어린 시절의 고난이 강조되는 듯하고 이것은 뒷날의 영광을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데에 효과를 크게 얻으려는 이야기 차임새의 필연적 일부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주몽(朱蒙)의 경우는 어린 시절의 고난이 역력히 그려져 있기도 하다. 결국 무강의 어린 시절의 고난이란 역시 그가 비범한 영웅이 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예비된 길이라고 파악된다.

많은 영웅 전설들에서 그 주인공들이 영광스런 성공을 이룩하기 전에 먼저 난처한 여러 문제들에 직면하고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자신이 지닌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보이거나 또는 초월자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그 초월

(15) 그 기록의 맨끝에 「三國史云是法王之子而此傳之獨女之子未詳」이라 덧붙였는데 거기서 이 글을 「此傳」이라하고 있다.

(16) 然而帝王之將興也 膺符命受圖籙必有以異於人者 然後能乘大變 握大器 成大業也 (紀異卷第一, 叙四)

자의 도움은 입거나 하여 결국 그가 비범한 존재였다는 점을 들어내는 것이 예사인데, ㉔의 도막에 들어난 무강의 결혼 이야기도 그런 관점으로 고난 가운데서 보여 주는 그의 능력 발휘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무강의 경우는 그 동기가 불가피하거나 강요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한 것이고 또 그 목적이 자신의 결혼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약간 특이하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튼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변장하여 신라 서울에 들레 들어 왔고 기발한 재치와 계약으로 남의 나라 공주와의 어려운 결혼을 성취시키고 있다. 비범한 지혜와 능력이 충분히 과시되어서 이 결혼을 이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드디어 그 아내의 도움과 신라왕의 존경을 받게 되어 임금의 딸 수 있었다. 고난의 극복을 거쳐서 영광에 이르는 영웅의 길을 걸은 것이다.

㉕은 무강의 영광스런 성공을 보여 주는 도막이다. 임금의 자리에 오름으로 해서 그의 성공은 마루에 올랐다. 가만히 보면 그의 그런 성공에는 세가지 힘의 도움이 있었다는 사실이 이 도막에서 지적되고 있다. 첫째는 아내의 도움이다. 그가 여태까지 흠더미처럼 여기고 쌓아 두었던 황금의 값어치를 아내의 가르침으로 해서 깨닫게 되고, 이는 뒷날 신라 임금의 존경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말미를 만든다. 두번째는 지명법사의 도움이다. 그의 신봉한 번력에 힘입어 언더처릴 쌓였던 금덩이를 하루 밤 사이에 신라 궁중으로 옮겨 줄 수 있었다. 끝으로 신라 임금의 도움이다. 신라 임금이 존경하게 되어 늘 안부 편지를 보내어 왔기 때문에 인심을 얻게 되어 임금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것이다. 가난한 과부의 아들이라는 신분과 어린 시절의 가난을 틀어켜 볼 때 왕위에 오른다는 영광은 너무나 엄청난 일이지만, 그의 태어남이 이미 신비한 이상출생이었고 어린 시절의 가난도 뛰어난 지혜와 능력으로 극복해 왔을 뿐 아니라 지혜로운 아내와 신통력을 지닌 지명법사와 위대한 신라왕의 도움을 입게 된 것은 모두 이 엄청난 성공을 위한 준비의 길이었던 것이다.

㉖은 뒷이야기의 도막이다. 대체로 우리의 영웅이야기는 성공이 이룩되고 나면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예사다. 철거세거나 수로거나 주몽이거나 모두 나라를 세워 임금이 되고 나면 뒷이야기는 없이 끝난다. 옛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웅들도 대개 「잘 먹고 잘 살았다더라」로서 일생이 마감되고 있는 것을 본다. 그런데 이 무강의 이야기에는 뚜렷한 뒷이야기 한 도막이 덧붙여 있다는 것은 약간 특이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내용도 전혀 불교의 가르침 창건에 따른 이야기라는 것이 또한 주목해야 할 점일 것이다. 지금까지 한 인물 무강의 일대기가 임금으로 영광을 얻기까지

그 과정을 일관성 있게 이야기해 왔는데 여기에 와서 그의 일생에 있어 작접으로 필연적 요청도 없는 불교 가람의 창건 이야기가 덧붙여 있는 것은 어찌보면 껍이나 부자연스럽다고도 생각된다.

아무튼 이제까지 살펴온 이 삼국유사의 기록은 기록자인 일연의 파악대로 한 인간의 일대기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아직 그가 과연 누구인지를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으나 「무강(武康)」이라고 이름한 어떤 인물의 일대기인 것만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 기록에서 그 「무강」은 뛰어난 영웅으로 취급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Ⅲ. 역사와 설화의 구별

이제까지 살펴 온 이 글의 짜임새는 결국 이 글이 어느 백제 임금(우선 「무강왕」이라고만 불러두자)의 일대기인데 그가 어느 임금이 아니라 뛰어난 영웅으로서 취급되어 있음을 보여 준 것이다. 그런데 가만히 이 글의 내용을 보면 앞에서도 은연중에 비친 바와 같이 거기에는 진실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과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고 어떤 심리적 요구에 의해서 상상적으로 꾸며진 허구가 교묘하게 울췌여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역사적 사실과 상상적 설화가 어울어져 이 글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과학적 합리주의가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을 다스리는 오늘날에는 이와 같은 상상적 허구와 역사적 사실에 대한 구별이 손쉽게 고려되지마는 과학적 합리주의가 아직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하지 못하면 옛날, 온갖 대상과 세계를 막연한 신비주의로써 인식하던 시절에는 그 구별이 아주 없었던 듯하다. 그러다가 일종의 윤리적 합리주의라고도 부를 수 있는 유교 사상이 사고 방식을 좌우하는 시절이 되자 명백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중요성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상상적 허구의 산물에 대해서는 너무나 돌이키지 못한 나머지 그 상상적 산물 뒤에 엄청난 힘을 지니고 도사려 있는 심리적 욕구 혹은 본능적 충동의 중요성에 대해서까지 완전히 장님이 되고 말았던 듯하다.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그와 비슷한 배도에서 쓰여진 역사 기록이다. 일어난 사실의 뒷쪽에 감추어져 있었던 인간 심리의 거대한 팔동이나, 일어난 사실들의 서로 사이에 얽혀진 복잡한 관계들의 설명에는 전혀 맹목이 되고 다만 그 사실의 결과만 하나하나 되도록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삼국사기이다. 거기 비하여 일연의 삼국유사는 전혀 역사적 사실과 상상적 허구에 대한 가름이 없는 듯하다. 과부가 연못의 미르와 정을 통하여 사람을 낳았다는 것이나

그 사람이 인심을 얻어 임금에 되었다는 사실이나 꼭 같은 현실로 보고 인연은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그 글의 끝에 삼국사에서는 이 사람이 법왕의 아들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과부의 아들이라 되어 있으니 어느 것이 참된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의견을 달아 놓고 있는 것이다.⁽¹⁷⁾ 그러니까 우리는 일연의 이 대목(武王대목)을 김 부식의 태도를 따라 엄연한 역사적 사실의 실기로 보아서도 안되고 그렇다고 전부들 역사적 사실과는 완전히 관계없는 상상적 민간 설화의 기록이라고 보아서도 안 될 것이다. 그 안에 들어 있는 역사적 사실의 꼬투리와 그것을 둘러싸고 펼쳐진 상상적 결과지들을 조심스럽게 가려내어 볼 필요가 있다.

㉠의 도막에서 보면 「백제의 설혼번재 임금 부왕은 이름이 장(璋)이다(第三十武王名璋)」는 기록은 역사적 사실인 것이다(물론 그 사실이 이 글의 내용에 틀림없이 들어 맞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우선 미루어 두고) 그러나 「그의 어머니가 과부로 연못가에 살면서 연못의 미르와 정을 통하여 그를 낳았다. (母寡居……池龍交通而生)」는 기록은 결대로 역사적인 진실일 수는 없다.⁽¹⁸⁾ 이것은 분명히 그의 출생을 비뉘하게 하여 그가 여느 사람과는 아주 다른 뛰어난 영웅이었다는 것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요구에 의해서 꾸며진 설화로 보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의 도막은 역사일 수도 있고 설화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의 어린 시절이 가난하였다는 것은 사실이더라도 마(薔)를 캐어 팔아서 살았다는 것은 그의 이름—薔童—에 연관되어 꾸며진 설화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의 도막에서 「신라 진평왕의 세째 공주(新羅眞平王第三公主)」⁽¹⁹⁾라는 기록은 역사적 사실일 수 있다. (이것도 물론 이 글의 내용에 맞느냐 하는 것은 별도 문제로 보고) 그러나 그밖의 기록들은 어느 것도 글자 그대로가 역사적 사실일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 공주의 이름이 선화(善化·善花)이며 참으로 아름다웠든지, 그 아름다움의 소문을 듣고 무강이 증의 형상으로 변장하여 신라 서울에 몰래 들어 왔든지, 동네 아이들에게 마를 베풀어 친해지고 문제의 그 노래를 지어 부르게 했든지……그밖의 모든 사건들이

(17) 三國史記法王之子而此傳之獨女之子未詳(三國遺事卷第二紀異第二, 武王條末尾割註)

(18) 輿地勝覽卷三十三 釜山郡대목에 「馬龍池在五金寺南百餘步世傳薔童大王母築空處」라고 하여 薔童大王의 어머니가 그 연못가에 살았던 것이 사실이더라도 그 연못의 미르와 통하여 그가 태어날 수는 없는 것이다.

(19) 이 대목은 일연이 백제의 무왕(武王)에 시간적으로 맞추기 위하여 조작했을 것이라는 점을 이니 李丙燾(1953)의 앞에 인용된 논문에서 지적되었다.

도무지 현실로서 있을 법한 이야기들이 아니다. 조루배기들의 동요를 듣고서 아무런 사실을 캐보지도 않고 공주를 내쫓는다든지, 그 귀양 도중에 생면부지의 떠거머리에게 공주가 몸을 내맡긴다든지 하는 그 모두가 실제 있었던 사실의 기록이라고 볼 때 너무도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들인 것이다. 다만 이 이야기들은 무강이 지극히 어려운 결혼을 그의 뛰어난 재주와 꾀로 이룩해 내었다는 것을 말해서 무강의 위대한 능력을 드러낼려는 심리적 요구에 따라 꾸며진 설화로 보여질 뿐이다.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걷어내고 나면 그 속에 남은 꼬투리는 결국 백제의 무강이 신라 공주와 결혼했다는 것과 그 결혼에 관련된 노래가 있다는 것만이 역사적 사실로 남는다.

㉔에서는 「함께 백제로 가서(同至百濟)」나중에는 드디어 「임금이 되었다.(即王位)」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겠다. 다른 것은 모두 꾸며진 설화로 보여지는데 대체로 세 갈래의 이야기로써 무강의 뛰어난 재능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다. 맨처음은 신라 공주가 그를 가난뱅이 총각으로 우습게 알았다가 사실은 엄청난 금덩이를 지닌 줄을 알아서 오히려 신라 궁중으로 보내 주기를 간청하게 되는 놀라움, 두번째는 신룡한 법력을 지닌 지명법사가 그를 적극적으로 도와 주고 있다는 사실, 세번째는 드디어 신라 임금도 평장히 존경하게 되어 늘 안부 편지를 보냈다는 것.

㉕은 흔히 있는 「절 세운 이야기」다. 연꽃 가운데서 미륵 삼존이 불쑥 나타났다는지 덕이 높고 신통력을 지닌 스님이 하루밤 사이에 산을 헐어 연꽃을 평지로 만들었다든지 하는 설화들은 부처님의 신비로운 능력과 아울러 그 절의 신앙적 권위를 높이기 위하여 절을 세울 때에 흔히 만들어지는 이야기들이다. 그러나 이런 설화들도 물론 실제로 절을 세웠을 때 생겨지는 것이지 아무런 전덕지도 없이 완전한 허구로는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미륵사를 세웠다는 것은 역사적 진실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것은 실제론 의심할 여지가 없다.⁽²⁰⁾

이제까지 살펴온 것을 알기 쉽게 도표로 묶으면 다음과 같이 되거니와 일연은 심리적 요청에 의하여 상상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설화와 실제적 행동으로 인하여 일어난 역사적 사실 사이의 구별이 제대로 안되어 이 기록에서 그들을 완전히 뒤섞어서 하나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또 이 태도를 이제까지의 많은 학자들도 무의식적으로 뒤따라 왔던 실정이다.

(20) 일연의 때에까지 그절은 있었고(「至今存其寺」라고 했음) 이제도 그 절터와 탑이 있으니.

구별 도막	실제적 사실(역사)	상상적 허구(설화)
㉠	무강이 태어났다.	① 그 어머니가 과부인데 그불 낳았다. ② 그 어머니가 연꽃의 미르와 교통하여 그불 낳았다.
㉡	무강이 어린 시절에 가난했다.	① 나물 캐어서 팔아 살아 나갔다.
㉢	무강이 신라 공주와 결혼을 했다. 그 결혼에 관련된 노래가 생겼다.	① 신라 공주의 미모를 들켜 변장하여 신라 서울에 숨어 들었다. ② 조무래기들에게 마흔 주어 친해졌다. ③ 조무래기들의 노래때문에 공주가 귀양가게 됐다. ④ 귀양가는 공주를 도봉에서 만나 결혼을 했다.
㉣	무강이 백제로 돌아와서 인심을 얻어 왕이 되었다.	① 금덩이를 쌓아 두고도 무엇인지 몰랐다. ② 금덩이 더미를 신라 궁중으로 보내 주었다. ③ 지명법사가 법력으로 하루밤 사이에 옮겨 주었다. ④ 신라임금이 크게 존경하여 늘 안부 찢지를 보내 주었다.
㉤	무강이 미륵사를 세웠다.	① 연꽃 가운데서 미륵 삼존이 나타났다. ② 지명법사의 법력으로 하루밤사이에 산을 허물어 연꽃을 평지로 만들었다. ③ 신라 임금이 온갖 바치물을 보내서 거들었다.

Ⅳ. 무강(武康)은 누구냐

이제 한 걸음 더 다가 서 보자. 백제의 무강왕(武康王). 세상 사람들로부 터 뛰어난 영웅으로 추앙받아서 마치 이야기의 주인공처럼도 인식되었던 사람, 어린 시절에 가난하여 고생도 하였으나 신라 공주와 결혼하고 드디어는 백제의 임금이 되고 미륵사를 세운 사람, 그런 사람인 무강왕은 과연 실제로 있었던 사람인가?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역사상 어느 임금인가? 이 문제에 들어가기 위하여 먼저 「무강」이라는 이름이 나타나는 문헌 기록을 모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4. 1. 기록의 검토

- ㉗ 武王 古本作武康非⁽²¹⁾
也百濟無武康
- ㉘ 第三十武王或云武康獄丙或小名一蒼節德⁽²²⁾
- ㉙ 有又後朝鮮武康王及妃陵 俗號末蓮大王陵一云⁽²³⁾
百濟武王小名善童
- ㉚ 後朝鮮武康王及妃雙陵 在郡西北五里許俗號⁽²⁴⁾
武康王爲末蓮大王
- ㉛ 彌勒寺 在龍華山世傳武康王⁽²⁵⁾
既得人心立國馬韓云云
- ㉜ 雙陵 在五金寺西數百步
高麗史云後朝鮮武康王及妃陵也⁽²⁶⁾

이 밖에도 일본에만 걸머진 「관세음응험기(觀世音應驗記)」라는 이름의 필사본에 백제의 제석사(帝釋寺)가 붙었다가 새도 적어진 이야기가 적혀 있고, 그 절을 새로 세운 임금의 이름이 「무강」과 아주 비슷한 「무광(武廣)」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기록은 기록 그 자체의 믿음성도 아직은 너무 없고 또 더 밝혀져야 할 문제들도 많이 있고,⁽²⁷⁾ 무엇보다도 이름이 매우 비슷하여 같은 사람이겠다는 추측은 서지마는 완전히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못분척하기로 한다.

먼저 ㉗~㉛의 기록이 적혀진 시기를 비교하여 보면 ㉗㉘는 1286년경, ㉙는 1451년, ㉚는 1454년 그리고 ㉛㉜는 1481년이 된다. 조금더 덧붙이면 ㉗㉘의 기록은 정확히 그 적은 시기를 알 길이 없으나 그 글의 내용에서 짐작하여 일년이 적은 1289년(충렬왕 15년) 보다 2,3년 앞서는 1286년(충렬왕 12년) 어름으로 보는 것이 근리한 통설이고, ㉛의 기록은 그 뒤 거진 200년이나 지나고 왕조도 바뀌고 하여, 지난 왕조의 역사를 보나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적으라는 임금(성종)의 특별한 당부를 받아서 2년 반의 세월이 걸쳐 다듬어서 적은 것이다. 그러므로 시기도 1451년(문종 2년)에 완성되었다는 것이 분명하다. ㉚도 나라에서 정성을 다하여 꼬박 2년 동안 걸려 기록한 문헌이고 완성된 해가 1454년(단종 3년)이 확실하다. ㉛㉜의 기록도 임금(성종)의 시킴을 받아 기록된 나라 일이었다면 만큼 시기가 분명한데 그 내용은 아마도 ㉚의 것을 크게 힘입어 된 듯하다. 간추려 보면 ㉗㉘의

(21) 三國遺事卷第二紀興第二

(22) 三國遺事 王曆第一

(23) 高麗史 卷第五十七, 地理志二, 金馬郡條

(24) 世宗實錄 地理志 益山郡條

(25) 東國輿地勝覽 卷第三十三, 益山郡條,

(26) 주(25)와 같음.

(27) 주(6)의 ㉚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음.

기록은 대체로 13세기 말에 되었고 ㉔㉕㉖의 기록은 각각 명확한 시기를 알거나와, 대충 말하면 ㉔㉕보다 2세기 가까이 늦은 15세기 후반에 된 것이다. 그러나 ㉔㉕㉖의 기록들은 필요했다면 ㉔㉕의 영향을 받은 수도 있는 시간적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우선 마음이 들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이들 기록을 적은 사람들에 대해서 잠깐 생각할 것이 있다. 곧 ㉔㉕의 기록자는 자유스러운 개인이요 승려인데, ㉖㉗㉘의 기록자는 중대한 국가 문헌의 취급자라는 무거운 책임감에 눌린 도인이요 판비들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㉔㉕㉖의 기록은 긴음성이 크고 또한 ㉔㉕의 영향을 받더라도 확실하다고 판단된 것만을 조심스럽게 받았을 것이라는 점도 명심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이런 두 가지 전제를 던지고 이들 기록을 보면 첫째로 무강왕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다. 일연의 판단대로 「부왕」이 「무강왕」인 것이 아니고 무강왕은 따로 있었다는 것이 옳겠다. 일연이 삼국유사를 엮으면서 보고 참고 했던 「고본(古本)」⁽²⁸⁾이 언제 것인지 몰라도 거기엔 「무강」이라고 했고, ㉔㉕㉖에는 그의 무덤이 실제로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㉗에는 그가 세운 절(彌勒寺)이 있다고 하고 있다. ㉔에서 일연이 그 무강을 무왕으로 못박아 고쳐 놓았으나 ㉕㉖㉗의 어느 것도 일연의 판단을 따르지 않았다. 세속에 떠도는 민간 설화까지 참조하여 풀이로 달린 서도⁽²⁹⁾ 무강왕이 곧 무왕이라고는 하지 않았다. ㉘에서 다만 막동대왕(末通大王)에 다시 풀이하면서 「一云」이라고 하여 백지 무왕의 아이 이름 마동(磬童)을 달아 놓았을 뿐이다. 물론 이것은 일연의 삼국유사 무왕 터목의 영향일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일연 혼자서 무강왕을 무왕이라고 속단하였을 뿐 그 이전의 고본에서나 그 이후의 책임감 지닌 문헌에서는 어디까지나 무강왕이 있을 따름이다.

다음으로 무강왕을 서상에서 막동대왕(末通大王)이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일찌기 양 주동교수가 「고가연구」⁽³⁰⁾에서 일연의 삼국유사를 믿어 무왕의 아이 이름을 서동(磬童)이요 그것이 곧 막동(末通)이라고 함으로써 오늘까지 이 기록을 꼼꼼히 보지도 않고 모두들 그렇게 믿고 「무왕=서동(磬童)=막동(末通)」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무왕을 두고 막동(末通)대왕이라고 불렀다는 기록은 전혀 없다. 기록 ㉘에서는 무강왕과 그 아내의 무덤을 세

(28) 이것의 구체적인 책의 이름인지 막연한 옛책이라는 말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삼국유사 제3권의 「法王禁殺」 비록에서는 「고기(古記)」라고 또 다르게 이름 붙여 놓았기 때문이다.

(29) ㉔의 俗號末通大王陵, ㉕의 俗號武康王爲末通大王, ㉖의 世傳武康王旣得人心云云.

(28) 梁柱東; 增訂古歌研究 p. 448 (1970. 增訂第4版, 一潮閣)

상에서 막동대왕 부딘(末通大王陵)이라고 부른다고 했을 뿐이고, 기록 ㉔에서도 세상에서 무강왕을 막동대왕이라고 부른다고만 못박아 놓고 있을 뿐이다. 그 어느 쪽에도 무왕(武王)은 없다. 다만 ㉔에서 백제 무왕의 아이적 이름이 서동이라 했다 한다고 적어 놓은 것은 앞에도 말했듯이 「一云」이라고 하여 삼국유사의 것을 말할 따름이고 그것도 무강왕이 무왕이거나 막동대왕이 곧 무왕이거나 하다는 의미는 전혀 비치지도 않고 있다. 말할 필요도 없지마는 삼국유사의 무왕 대목에서도 일연이 잘못 고친 무왕을 본래대로 무강왕으로 바로 잡아 놓고 보면 서동(驛童)은 그대로 무강왕의 아이적 이름으로 바로 잡히고 마는 것이다. 서동(驛童=末通, 곧 막동)은 무강왕의 아이적 이름일 따름이요 그래서 무강왕을 세상 사람들이 정답게 부르느라고 막동대왕(末通大王)이라 했던 것이다.

이제까지 기록 ㉑㉒㉓㉔㉕㉖를 한데 모아 살펴본 결과는 ① 무강왕은 불릴없이 있었다. ② 그의 무덤도 있고 그가 지은 절도 있다. ③ 그 무강왕의 어린적 이름이 서동(혹은 막동)이었으므로 임금이 되어서도 백성들이 막동대왕이라고 불렀다. ④ 이 무강왕을 무왕이라고 고친 이는 일연이고, 일연의 그 고침을 책입있는 문헌들에서 받아드리지 않았다 하는 몇가지 사실들을 알지 못 것이다.

4.2. 무강은 무왕인가?

이제부터는 실제로 있었다고 보여지는 그 무강왕이 과연 누구인가를 밝혀 볼 차례가 되었다. 여태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제시된 의견들을 따라서 차례로 살펴졌는데 맨처음은 무강왕을 무왕이라고 한 견해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이것은 물론 맨 먼저 일연에 의하여 단정되었던 것이고 1953년 이병도교수의 논문⁽²⁹⁾이 나오기 전까지 모든 국문학자나 국사학자들이 믿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이 견해를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무왕은 앞에서 우리가 밝힌 무강의 실제적 일생⁽³⁰⁾과 들어맞는 마디가 전혀 없다. 무왕의 출생은 법왕의 아들로 분명하여 신비롭고 이상한 구석이 조금도 없고 그가 뛰어난 영웅으로 꾸며지기 위하여 출생을 신화처럼 만들 아무런 꼬투리도 없다.⁽³¹⁾ 또 어릴 때에 고난을 겪어야 했을 아무런 흔적도 보이지 않고 어릴적 이름도 막동(驛童)일 가능성이 전혀 없다.

(29) 주(4)의 ㉑과 같음.

(30) 이글 [3. 역사와 설화의 구별] 대목에서 밝힌 실제적 사실의 알맹이.

(31) 일연도 스스로 그것을 대하여 자신이 없었던지 「三國史云是法王之子而此傳之獨女之子未詳」이라고 꼬리를 달고 있다.

『32』 그리고 신라의 공주와 혼인을 했을 가능성은 터무니도 없으며 『33』 그가 미륵사를 지을 수도 아예 없었다. 『34』 이렇게 삼국유사가 전하고 있는 무강의 일생에다 무왕을 견주면 비슷한 곳을 아무데서도 찾을 수가 없는데도 일연이 그 무강을 무왕이라고 뜻박은 것은 다만 그 임금이름(諡號)의 「무(武)」라는 글자 때문이 아니었던가 싶다. 결국 무왕은 무강왕일 수가 없겠다.

4. 3. 무강은 동성왕인가?

삼국유사 무왕 대목의 그 무왕이 사실은 동성왕이겠다는 주장은 흠잡을 데 없을 만큼 타당성이 있다. 삼국사기가 보여 주는 동성왕의 사람됨은 보기에 따라서는 뛰어난 영웅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본디 잔이 크고 활을 잘 쏘았고 『35』 임금이 되고 나서도 사냥을 즐기고 『36』 호랑하계 놀기를 좋아했다. 『37』 임금자리에 오른 것도 자연스랄게 권력 받아서가 아닌 듯하다. 사실 삼국사기가 『38』 보여 주는 간략한 기록에 의해서도 이 시기의 백제는 가장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었던 줄을 알 수 있다. 고구려 장수왕의 침략으로 도읍이었던 한성(漢城)과 임금(개도왕)을 잃고 서울을 곰나루(熊津)로 옮겨 문주왕이 임금자리에 앉았으나 병관좌평 해구(解仇)의 세력을 다스리지 못하고서 드디어 4년만에 해구의 무력에 의해 시해되고 말았다. 해구는 열세 살 난 어린 왕자를 임금자리에 앉히고서(三斤王), 나라의 모든 일을 저 손아귀에 쥐다가 끝내는 대두성(大豆城)을 근거로 반역을 일으켰다. 마침 흥성스러운 좌평 진남(眞男), 리술 진노(眞老)의 힘으로 해구의 무리를 무찌르고 쿠테타는 눌렀으나 정국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던 모양으로 이듬해 겨울에 삼근왕이 열다섯의 어린 나이로 갑자기 죽고 그의 사촌별인 동성왕이 임금이 되고 있다. 삼근왕의 갑작스런 죽음과 동성왕의 오름에 대하여 삼국사기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나 전체의 상황으로 추리해 본다면 잔이 크고 무슬에 뛰어난 동성왕이 정국의 안정을 이룬다는 명목으로 임금자리들 나이 어린 사촌으로부터 빼앗은 것이 아닌가 싶다. 아무튼 동성왕의 사람됨은 보

〔32〕 pp. 53~54.

〔33〕 이 점은 이미 李丙熙(1953)의 흥분한 논의가 있었다.

〔34〕 이 점은 이미 池靈英(1974)이 여러 모로 논증하여 미륵사 창건 연대를 백제 서울이 공주에 있던 「각채등방기」로 잡고 있다.

〔35〕 三國史記卷第二十六, 百濟本紀第四: 膂力過人善射百發百中.

〔36〕 위의 같은 곳의 五年庚戌月 獵於熊津北獲神鹿 또는 十四年冬十月王獵牛鳴谷親射麀.

〔37〕 위의 같은 곳의 二十二年 五月 王與左右宴臨流閣終夜燠獸.

〔38〕 三國史記卷第二十六, 百濟本紀第四, 文周王, 三斤王, 東城王條.

기에 따라 영웅처럼도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임금이 되기 전 어린 시절에는 혼란한 정국 아래에서 가장 가까운 왕족으로 여러가지 불안과 어려움 속에 고난을 겪었을 것이다. 또한 신라 공주와의 결혼도 박 노준(1976)⁽³⁹⁾처럼 추리하면 그럴듯하게 풀려지기도 한다. 끝으로 미륵사의 창건도 지 현영(1974)⁽⁴⁰⁾의 밝힘으로는 동성왕 때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

결국 동성왕의 일생은 영웅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린 시절에는 고난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신라 공주와 결혼을 했을 듯하고, 임금이 되었고, 미륵사를 지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니 곧 삼국유사의 무왕 대목에 그려진 그 무강의 일생에서 뽑은 역사적 사실⁽⁴¹⁾에 모조리 들어 맞는다. 그러니 무강은 바로 동성왕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약간의 의문을 끼워넣을 틈이 몇 군데 있다. 첫째 의문은 역시 신라 공주와의 결혼이다. 이 병도(1953)의 짐작대로 동성왕 15년에 신라의 이찬 비지의 딸과 국혼한 것이 동성왕 자신의 것이라고 할 때, 임금의 그때 나이는 이미 혼기를 멀리 넘겼고 더구나 임금의 자리에 오르고 15년 동안이나 미혼으로 있을 수가 없을 것이며 가령 계비(繼妃)거나 후비(後妃)일 가능성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백제와 신라의 판치는 결코 백제가 신라에게 꺾었던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임금의 계비거나 후비를 신라에 받아들일 처지는 아니다. 동성왕은 임금이 되어서 정국 안정을 도모하고 해구(解仇)의 반란을 진압한 진노(眞老)를 병관좌평으로 삼아 병사를 위임하고 중국의 남제(南齊)와 교린하면서 신라와 화친 동맹하여 고구려에게 설욕하는 것이 으뜸 목표였던 것이다. 신라와 손잡고 고구려를 치는 것이 할아버지 개르왕의 원수를 갚는 일이고, 또한 백성들의 소망을 풀어 민심을 얻는 길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신라에 대해서는 높은 자세를 취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을 듯하다. 만약 박 노준(1976)과 같이 추론한다면 나이의 문제는 잘풀리지 않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혼인 특히 왕족과 왕족 사이의 혼인이 그 때인들 그처럼 우스운 장난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둘째 의문은 일전이 근거한 고본(古本)에 무강왕(武康王)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어떠한 근거에 말미암아 동성왕이 무강왕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무강의 어릴적 이름이 마동(磨童)이고 백성들이 무강왕을 막통대왕(末通大王)이라고 했는데 동성왕의 이름이 모대(牟大 혹은 牟都)

(39) 註(4)의 ㉠과 같음.

(40) 註(6)의 ㉠과 같음.

(41) p. 51의 도표.

(42) 마계(稷術)⁽⁴³⁾ 또는 말다(末多)⁽⁴⁴⁾라고 했으니 무강왕의 襄童·末童과 동성왕의 率次·襄童·末多是 매우 비슷한 소리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왜 동성왕과 무강왕이라는 중박식 임금 이름(諡號)에는 서로 다른 구석이 아예 없을까?

세째 의문은 동성왕의 영웅성이다. 삼국유사의 무강왕은 분명히 영웅으로 꾸며져 있는 것은 이미 보았다. 삼국유사의 기록은 동성왕이 죽은 뒤 800여년이나 지나고 될 것이고 크력사나 세종실록이나 여지승람이면 약 천년이 지난 뒤인데 그때에도 익산군 언저리에 무강왕의 영웅 전설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동성왕이 과연 죽은 뒤에도 오래오래 영웅으로 추앙받아 전설화할 수까지 있는 임금이었던가? 그 대답은 아무래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동성왕은 살아 있는 동안은 영웅일 수도 있는 임금이다. 그러나 결코 참다운 영웅은 아니기 때문에 죽고나면 잊혀지거나 오히려 원망 들을 그런 임금이 었다. 실제로 그는 난폭하고 사냥과 놀이에만 힘을 써 아무런 치적도 없으 드디어는 의사좌평 백가(百加)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다. 일본쪽 기록에는 그가 너무나 포학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임금자리에서 쫓아냈다고 했을 정도 였다.⁽⁴⁵⁾ 삼국유사의 무강왕 이야기는 실제적 사실의 꼬투리에 미묘한 설화의 살이 많이 붙어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설화가 되기까지는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무강왕이 살다가 죽고 나서 오래동안 그 생애가 점점 영웅의 일점으로 설화화하기 위해서는 그 실제 일생이 참다운 영웅이 아니고서는 될 수 없는 것이다. 죽고 나니 그 임금이 더욱 우러 러 보인다고 할 때 영웅의 설화로 살이 붙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동성왕 과 같이 험은 있었으나 참 사랑이 없었던 임금이 삼국유사의 무강왕으로 영웅 설화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의문이 나에게서는 강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무강왕을 바로 동성왕이라고 볼 수는 없다.

4.4 무강은 원효인가?

삼국유사에서 실린 무왕대목과 원효불기 대목에는 부분적 요소들을 레어 내어서 맞추니까 과연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었다. 어린 시절의 이름, 거티 짚은 것, 노래를 지어 부른 것, 공주와 결혼한 것, 절을 지은 것 들이 모두

(42) 二國史記卷第二十六 百濟本紀 第四 東滅王條

(43) 三國遺事卷第一, 三曆第一

(44) 日本書紀卷第十六, 武烈天皇條

(45) 定歲百濟末多王無道暴虐百姓國人遂除而立崎王(日本書紀卷十六 武烈天皇四年)

양쪽에 다 들어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사 재동(1971)⁽⁴⁶⁾의 말과 같이 어디까지나 부분적으로 배어 놓고 볼 때에만 그렇다. 앞에서 자세히 새로 검토한 바와 같이 삼국유사의 무왕 대목을 전체적인 짜임새로서 보장을 때 원호를 볼 때 특락고는 아두런 비슷도 나타나지 않는다. 하나는 어느 쪽지 임금의 영웅적인 일생을 이야기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앞뒤가 분명한 신라의 스님 원호의 기이한 일생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비록 부분적으로 맞은 곳이 있다더라도 근본 뿌리와 그 짜임새가 아주 다른 것이다. 그래서 애초에 서로 비교해 볼 성질이 못되는 기록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4. 5. 무강은 무령왕인가?

무강이 곧 무령왕일 수 있다는 의논은 사 재동(1971)⁽⁴⁷⁾에서 매우 조리있게 펼쳐 보였기 때문에 나로서는 새삼스레 접말을 하고 싶지 않다. 그는 거의 13바닥을 할애하여 일곱 가지 조목을 들어 무강이 무령왕일 것이라고 풀이하였다. 그런데 안타깝지도 그는 설화가 때때로 실제적 역사의 꼬투리 없이도 역사적 전설인양 꾸며 진다는, 곧 순전한 상상적 설화가 실제적 역사인양 역사화하기도 한다는 이론이 이끌려 그 장황하고 애써 풀이를 충두리쳐 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결국 그는 「저동설화는 거짓으로 꾸미진 역사전설의 불파하다」고 회려했던 것이다. 그러나 설화의 역사화 경향이란 그야말로 꾀쳐로 있을 수 있는 진실의 한쪽만을 이야기할 뿐이다. 꼭 그 반대로 실제적 사실인 역사가 상상적 설화로 자라나서 신기한 성경을 덧붙이는 이른바 역사의 설화화 경향이 라는 것도 때때로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최 치원, 김 유신, 최 영, 사경당 등의 역사적 일생에 말미안아 어떠한 상상적 설화가 싹터 자라났던가를 넉넉히 볼 수가 있다. 우리는 설화가 역사인양 고착되는 경향과 거꾸로 역사가 설화인양 번져나는 경향을 함께 의식하면서 이 서동의 이야기—곧 무강의 이야기—를 어느 쪽으로 보는 것이 실제와 또 이치에 가까운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적어도 임금 가치의 조득으로 그 이야기를 잘라지어 살필 때 그것이 무령왕의 일생과 부합한다면 어찌 그 모두를 애당초 꼬투리 없는 설화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

나는 다시 삼국유사 무왕 대목의 무강왕은 무령왕이요 그 이야기 전부는 무령왕의 역사적 일생에다가 상상적 설화가 번져나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하여야겠다. 왜냐하면 앞에서 지루하지 살펴온 그 삼국유사의 기록과 거기서 뽑

(46) 註 (6)의 ㉠과 같음.

(47) 藏菴池憲英先生華甲紀念論議(1971. 湖西文化社) pp. 905~917.

은 역사의 꼬투리가 무령왕의 일성과 그 밖에 너무나 잘 들어 맞기 때문이다.

첫째 삼국유사에서 무왕이라고 고치기 전에 이 이야기의 주인공 이름이었던 무강(武康)은 어차피 무령(武寧)일 수밖에 없었다. 삼국유사의 왕력(王曆)에는 두명왕이 호령왕(虎寧王)이라고 적혔는데 이것은 이 임금의 중국식 이름이 한문 글자의 소리(音)에 대인 것이 아니라 뜻(訓)에 매인 것이라는 증거다. 무(武)와 호(虎)는 소리는 아주 다르지만 그 새김은 같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령의 령(寧)과 무강의 강(康)도 마찬가지다. 소리는 아주 다르나 새김은 모두 「평안하다」로서 똑 같다. 백제를 덧붙이면 이 임금의 백제 이름을 중국식으로 적을 때 ① 武寧 ② 虎寧 ③ 武康 ④ 虎康 가운데 어느 것이라도 상관 없는데 길 부식의 삼국사기는 ①을, 일연의 삼국유사 왕력에는 ②를, 그리고 고본에는 ③을 골라잡았던 것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일연이 무령=호령인 줄은 알면서 고본의 무강이 또한 무령·호령과 한 이름이라는 것을 짐시 깨치지 못하여 백제에 무강왕이 없으니 무왕이겠다고 속단하여 은갓 혼란의 씨가 된 것이 아닌가 싶다. 어쨌든 무강(武康)이라는 한문식 이름이 무령(武寧)과 일치한다고 보는 배는 무리가 없을 듯하다.

둘째 무강의 출생인데 이는 사 지동(1971)이 예리한 추리까지 하여 무령왕의 출생과 부합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만 쪽으로 생각하더라도 왕족 약인으로 있던 젊은 시절의 동성왕이 그의 호탕하고 난폭하며 어찌던 파락호처될 행세할 수도 있는 성품으로 보아 미고의 과부였거나 아니면 예쁜 처녀를 피롱하여 생과부르 만들어 놓았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물론 그렇지 않더라도 무령왕이 참된 영웅이었다면 뒷날 설화화하는 과정에서 영웅의 일생이라는 원형에 끌려 출생이 전혀 정상이 아니도록 꾸며질 수가 있는 것이다.

셋째 어린 시절의 고생. 삼국유사에 보이는 무강의 어린시절 고난은 그때로 무령왕의 그것일 수 있다. 동성왕이 임금이 되기 전에 극도로 혼란한 백제의 정국 속에서 흔들리는 왕실의 가까운 거례로서 여러가지 위험과 수난을 당할 가능성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은 박 노준(1976)의 추론⁽¹⁸⁾이 이미 있었기로 거듭 말하지 않겠고, 또는 무령왕이 동성왕의 파락호 시절(?) 남몰래 던져 된 아들이 될 수도 있다면 그 고난은 더욱 절실했을 것이다.

넷째 신라 공주와의 결혼에 있어서도 동성왕 쪽보다는 무령왕 쪽이 더욱

(18) 註(4)의 ㉠과 같음.

무리없이 설명될 수 있다. 결혼의 주인공이 동성왕이라고 보면 여타까지 무리가 생긴다. 우선 신라 이찬의 딸이 백제 임금 자신의 아내로서는 부족하고, 나아가서나 외교적 처지에서 무리하다는 젊은 벌써 앞에서 지적하였다. 그러나 무령왕이라면 아무런 무리가 없다. 신라 이찬의 딸과 백제 임금의 둘째 아들은 신분으로 합당하고, 동성왕 15년이면 무령의 나이에 알맞았고, 무엇보다도 신라에 가서 혼인해 돌아와 상당한 세월이 지나면서 여타까지 사적으로 민심을 얻은 뒤에 임금 자리에 올랐다고 하는 삼국유사의 무강 이야기에 꼭 들어 맞는다.

다섯째 임금이 되었다는 사실에 있어서도 무령왕이 잘 어울린다. 삼국유사의 기록에 서동이 「인심을 얻어 임금 자리에 올랐다」⁽⁴⁹⁾고 했는데 동성왕은 백성들의 호응을 받아 앉혀진 임금이었다는 아무런 기록도 없고 그렇게 추측해 볼 조짐도 아주 없다. 그러나 무령왕은 삼국사기에 분명하게 「민심이 그에게로 쏠려서」⁽⁵⁰⁾ 임금 자리에 올랐다고 했으며 일본 쪽의 기록에는 백성들이 동성왕을 쫓아내고 무령왕을 세웠다고까지 해 놓고 있다.⁽⁵¹⁾

끝으로 서동이 임금이 되고 나서 미륵사를 세웠다고 하는 삼국유사의 이야기도 동성왕과 무령왕에 두루 가능성이 있지만 동성왕 보다는 무령왕이 더욱 두드러진 확실성으로 보여지는 것은 이미 지 현영(1974)의 발원이⁽⁵²⁾ 있었거나 삼국사기를 중심으로 하여 동성왕과 무령왕 시대의 백제 평판을 조금만 자세히 살펴 보면 그만한 불사 창건의 일은 무령왕 시절에야 이룩될 수 있다는 논리는⁽⁵³⁾ 매우 이치에 맞다고 생각될 것이다.

이리하여 삼국유사의 무왕 대목에 실린 무강(서동)의 이야기는 바로 백제의 무령왕 그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그 대목이 무강(서동)이라는 한 영웅의 일생을 실화처럼 살피워 걸쳐 놓은 것이라고 볼 때 그것은 무령왕의 일생과 너무나도 잘 들어 맞는 것이다. 동성왕의 둘째 아들이면서도 민심을 얻었기로 임금이 된 사실은 그만 두고라도, 분주왕, 삼근왕, 동성왕, 살려에 걸쳐 정국 불안의 근원이었던 임금과 귀족 사이의 불화와 다툼을 완전히 마무리지어 나라 안의 정치적 안정을 얻었으며, 가뭄으로 굶는 백성들을 나

(49) 嚮董由此得人心即王位.

(50) 眉目如舜仁慈寬厚民心歸附卒大在位二十二年薨焉位.

(51) 末多王無道暴虐百姓國人共逐武寧立(日本書紀 卷十六의 註에 引用된 「百濟新撰」 대목)

(52) 註 (6)의 ㉔과 같음.

(53) 註 (4)의 ㉔ 및 李基白; 百濟史上的 武寧王(月刊文化財, 서울, 1971)

라 곡식을 떨어 건져 주었으며,⁽⁵⁴⁾ 수리 시설을 잘 하여 거러지 떠돌이 들을 농토로 돌아가게 하였다.⁽⁵⁵⁾ 나라 밖으로는 중국의 양(梁)나라와 이웃 신라에 선린하면서 개로왕 이래로 원수가 된 고구려를 밀어부쳐 드디어는 한성(漢城)을 되찾고 거기에 튼튼한 성을 쌓다가 병으로 환도하여 곧 죽었다. 삼국사기에 적힌 것만으로도 그가 임금일 동안 고구려와 네번 싸워 모두 이겼으며 말갈과 세번 싸워 두번 이겼다. 그 가운데 한 번은 고구려와 말갈이 합세하여 한성(漢城)을 치려하였으나 드디어 물리치기도 했다. 나라 안팎의 다스림이 이만한 임금이 백제에서는 다시 없고, 이뿐이라면 삼국유사에 적힌 그 무강(서동)으로 설화화하여 비상한 영웅으로 오래오래 전해지면서 이야기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V. 노래가 생겨난 바탕

드디어 서동노래를 살펴볼 차례가 되었다. 이제 다시 삼국유사의 그 기록으로 돌아가서 노래가 적힌 언저리를 살펴 보자. (물론 지금부터 나는 이 기록을 본시 문명한 무령왕의 일대기인데 오랜 세월 동안 전해지면서 설화화된 것으로 믿고 이야기할 것이다.) 노래는 기록의 ㉔도막 곧 무령왕의 결혼 이야기에 끼여 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무령왕은 부왕의 외교적 필요에 따라 정식으로 청혼되어 신라 왕족의 딸과 결혼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삼국유사에서는 전혀 다르게 결혼의 내막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꾸며진 설화이거나 이 설화는 될 수 있는 대로 이치에 맞게 설명될 필요가 있다.

기록의 ㉔도막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무령왕의 결혼을 한 마디로 간추리면 결국 무령왕이 피를 써서 신라 공주를 흠쳤다는 것이다. 결혼을 하나의 도둑질로 보는 것은 으레된 우리 겨레의 민속으로 보이는데 이 ㉔도막은 바로 이런 민속의 반영에 지나지 않는다. 「사위는 도적놈이라」는 속담도 있거니와 아직도 시골에서 치루는 옛스런 혼례식에는 신랑 신부가 첫날밤을 보내고 난 다음날이면 신부집 처객들이 주동이 되어 간밤에 잃어버린 이집 딸을 찾는다고 신랑을 불러서 도둑으로 몰아세운다. 이른바 신랑 다루기다. 남의 귀한 딸을 왜 흠쳤느냐? 무슨 피를 써서 흠쳤느냐? 흠쳐서는 어디에 감추었느냐? 하면서 방망이로 발바닥을 치고 다루어 술과 안주를 마련해 놓고

(54) 三月至五月不雨川澤竭民饑發倉賑救(三國史記 卷第二十六 百濟本紀 第四 武寧王 六年條)

(55) 下令完固邊防疆內外游食者歸農(위와 같은 곳의 武寧王 十年春正月條)

죄를 빌라고 옥박지른다.

무령왕(무강·서동)이 꾀를 써서 신라 공주를 결국 훔쳤다(潛遜焉)는 것은 그대로 혼인을 했다는 말일 뿐이다. 다만 결혼을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색시집 쪽이지 종각집 쪽은 아니기 때문에 이 무령왕의 결혼 설화는 신라 곧 경주쪽에서 생겨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㉔도막의 결혼에 따른 설화는 무령왕의 처가인 이찬 비지(比智)의 집안 또는 그 이웃, 나아가서 신라 왕실(나라 사이의 혼인이었던 만큼) 언저리에서 생겨 자라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던 서동노래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일까? 무령왕(무강·서동)이 스스로 지었다는 것은 ㉔의 전부가 사실이 아니고 설화인 이상 믿을 수 없고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 아무래도 이 신라와 백제 사이에 맺어진 커다란 사건인 국혼으로 말미암아 경주지방에서 생겨난 동요 또는 민요로 볼 수밖에 없다. 그것은 이 노래의 짜임새가 잘래로 보아 두태노래인⁽⁵⁵⁾ 만큼 민요로 보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던 어떤 심리적 동기가 작용하여 이 혼인으로 말미암아 경주 사람들이 이런 민요를 노래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다시 기록 ㉔도막을 꼼꼼히 살피는 데서 추측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신라 민중들은 이 국혼을 도둑맞은 것으로 생각했다는 사실이다. 신라 쪽에서 바란 결혼이 아니라 백제의 외교에 속아서 공주를 도둑맞았다고 생각한다. 왕실의 외교적 필요에서 이룩한 이 혼인을 신라 백성들은 마땅하지 못하게 여겼던 것이다. 이것은 삼국 가운데서 중국 등의 바깥나라 영향을 가장 적게 입고 자기 것을 지켜온 신라 사람들이 지니는 백제에 대한 일종의 우월감에서 올 수도 있을 것이고 도움을 한성에 세웠다가 고구려의 장수왕에게 짓밟히고 나서 폄나루(웅진·공주)로 옮겨 위축된 백제에 비하여 이제 막 나라의 힘이 떨칠만 하게 일어서는 신라인 만큼 백성들의 백제에 대한 우월감은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백성들의 심리바탕이 백제를 옥되게 하기 위하여 그리로 시집가는 공주를 비방한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노래의 모습을 아직 환히 밝히지는 못했으나 그 노래로 하여 공주가 쫓겨 났다고 이야기 되었으니 그 노래가 필연 공주를 비방한 것은 틀림없었고 「공주는 못쓰게 된 처녀다.」하는 내용의 노래를 부르는 신라 백성들은 거기서 이종의 심리적 태감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곧 「우리는 나쁘다고 버렸는데 너희는 소중한 여겨 좃어 갔

(55) ㉔(2)와 같음.

다」고 하여 자기들의 우월감을 지키고, 한편 이 꺾혼은 대등하게 맺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만 공주를 버렸을 뿐이고 백제만 일방으로 클래 맺은 것이니 우리는 그 혼인을 인정할 의무가 없다고 하여 왕실의 혼인을 정신적으로 무효화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동성왕의 청혼으로 신라 이찬 비지의 딸과 동성왕의 둘째 아들 무령왕이 서기 493년에 (백제 동성왕 15년, 신라 소지왕 15년) 혼인을 하였는데 이 국혼을 뜻마땅히 여긴 신라 백성들이 그 혼사의 당사자인 신라 왕실과 백제를 욕되게 하기 위하여 공주를 비방하는 뜻의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Ⅶ. 마 무 리

여까지 살펴 온 것을 간추려 마무리지어 보면 다음과 같이 된다.

첫째, 서동노래가 격혀 있는 삼국유사의 무왕 대목은 백제 무령왕(고본대로 하면 무강왕)의 일대기가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설화로 번져난 것인데 일연이 오해하여 「무왕」으로 그릇 알았다.

둘째, 서동노래는 백제의 무령왕이 동성왕의 둘째 아들(세자가 아님)로서 신라 이찬 비지의 딸(이름은 「선화」이었을 듯?)과 나라혼인을 한 사실에 말미암아 신라 백성들에게서 생겨난 것이다.

셋째, 그러므로 어떤 개인이 창작한 노래가 아니라 집단 공동의 만들어진 두레노래(兜率歌) 갈래에 드는 것이다.

넷째, 그러니까 이 노래가 생겨난 때는 신라와 백제 사이에 그 나라 혼인이 있던 서기 493년(신라 소지왕 15년, 백제 동성왕 15년) 즈음일 것이다.

다섯째, 신라 백성(물론 서울인 경주의 백성)들이 이 나라 혼인을 두고서 서동노래를 지어 부르게 된 심리적 동기는 그들의 자주적 우월감으로써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노래의 대체적 뜻은 신랑(백제 왕자)을 도둑으로 들고 신부(신라 공주)를 못쓰게 버린 처녀로 욕하는 내용일 것이다.